

[TV]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장르드라마' 시대 열리나

의학, 수사물 등 새로운 소재 드라마 제작 붐... '사랑 놀음' 한계 극복 주목

드디어 한국에도 '장르 드라마' 시대가 열리는가. 그동안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장르 드라마가 없었다. 의학드라마는 병원을 무대로 한 사랑이야기, 범죄드라마는 범인을 무대로 한 사랑이야기였다. 그만큼 그동안 한국 드라마는 '한류 열풍'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랑이러한 한정된 소재에 집착해 왔다. 다른 장르가 있다면 사극이나 주부층을 위한 아침·주말연속극이 전부이다.

시청자들은 점차 똑같은 소재가 반복되는 드라마를 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단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의학드라마이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월화드라마 '구름계단'은 '살인왕'의 저자인 와타나베 준이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다. 내년 초 MBC에서 방송 예정인 '하얀 거탑' 역시 일본 작가 아자키 도요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안관석 PD가 준비 중인 '하얀 거탑'은 일본에서 78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드라마화되기도 했다. '다모'와 '패션 70s'의 이재규 PD는 '육탄방 교양'의 민효정 작가와 함께 의학드라마 '이발사'(가



<구름계단>



<황진이>

제)를 준비중이다. SBS도 내년 초 '관세어라 금순야'의 이정선 작가가 집필하는 의학드라마를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4년 MBC에서 방송돼 큰 인기를 모았던 '종합병원'에 이은 '종합병원2'도 관심을 모은다. 당시 대박을 맞았던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외주제작사 에이스토리는 1년여 동안 '종합병원2'를 준비한 끝에 내년 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SI 과학 수사대' 류의 수사물도 시도되기 시작했다.

엘로우필름은 내년 방영을 목표로 설정구·손예진·차인표 등이 출연하는 범죄 수사 드라마 '에이전트 제로'를 사전 제작한다. 그 외 다음달 방송되는 하지원 주연의 KBS 2TV '황진이'와 김현식·박지유이 캐스팅된 '해어화(解語花)'도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들이다.

이처럼 장르 드라마가 활발히 제작되는 것은 소재의 한계를 인한 차별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뻔한 '사랑놀이'에 시청자들이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에 의존한 트렌드 드라마들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드라마 기획안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색탐방 일본을 간다 (오전 8시 20분)
'물과 성(城)'의 도시이자, 2002월드컵이 열렸던 도시 오사카.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오사카가 자랑하는 제일의 관광 먹거리를 소개한다.
오사카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타코야키 가게. 둥글고 말랑한 빵 '타코야키'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붕어빵과 같은 친근한 존재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지만 타코야키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것, 바로 문어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Each column lists program names, times, and channel numbers.

케이블·위성TV 26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FM 99.9 MHz / FM 99.5 MHz
www.kjpb.com

TBN 교통방송
www.tbn.com

BBS 불교방송
www.bbs.com